

ㅇㅅㅇ!

 리포: 즉 이치노스케가 전투이동으로 7마스를 움직인다

 Kaming (GM): 다들 오셨나욘

 악동양반: 화장실...

 이치노스케: [역사란 아와 비아의 싸움이다] 팻말

 Kaming (GM): ㅋ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g

 Kaming (GM): GG

 악동양반: 다녀왔습니다

 이치노스케: 아라쉬의 영압이....

 아라쉬: ㅇㅂㅇ

 쿠사카베 린: 기타!

 악동양반: 그러타  
있는거시다

 쿠사카베 린: 영체화하고 계셨어

 아라쉬: (기세소실)

 악동양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인: 크왕!

호랑이다!

크왕!

 아라쉬: 크롱

 쿠사카베 린: 크롱크롱

크로웅

뽀로로 안 본지도 오래됐네...

세뇌당하는 수준으로 매일 뽀로로를 들었는데

@\_@

 Kaming (GM): 자 그러면

다들 오신듯하니

시작허볼까요

 아라쉬: 념

 Kaming (GM): =====

여러분들은 기지로 복귀하여 쉬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여러분들이 구출한 '도쿄의 영맥'으로 추정되는 소녀가 아직 쓰러진채 눈을 뜨지못하고있지요.

치료해보려고해도 저 소녀는 여러분들과는 다른 영맥의 소녀 자연스럽게 깨어날동안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 본부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고있죠.



**Kaming (GM):** 그동안 시로는 정신을 차려 회복상태에 있습니다.



**쿠사카베 린:** (호호오)



**코노하나 사쿠야:** "흠..아마도 나와같은경우일걸세 기다리다보면 깨어날꺼야 힘을 너무 소진한거겠지"라며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긴했습니다만



**와타나베 아키:** "그건 그렇고 가설이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하사시로의 대영맥뿐만아니라 다른곳의 대영맥도 실체화했다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흠...



**와타나베 아키:** "여지껏 발견하지 못한건 신도때문이겠죠"



**호인:** "교토라는곳의 영맥도 추적하는 중이라 말하였다"  
"아니 이미 사로잡혔을지도 모르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군..."



**와타나베 아키:** "대영맥은 일본의 심장과도 같은거예요"  
"대영맥이 흐트러지면 다른 크고작은 영맥들도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그 조짐이 보이고있구요"  
"일본 각지에서 초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또 그 때처럼 되는 건가...?"  
@한참 옛날의 그 사태를 말하는거죠



**와타나베 아키:** 네..이대로라면 그때처럼..."



**아라쉬:** "막아야지."  
"피해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



**쿠사카베 린:** (즉 다시 혼돈기가 찾아온다고...) 린은 한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습니다



**와타나베 아키:** "다행인건 하사시로의 대영맥은 이제 안정됐다는거죠. 그 덕분에 아직까지 큰 사건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잠시 겹눈질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겠네요.



**코노하나 사쿠야:** "흐름..하지만 임시방편일뿐 넘치기 시작한 힘의 흐름을 혼자서 제어하기는 힘들거야"



**미츠루기 아야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전달해야할 소식이 있습니다."  
@죄인과같은표정으로 아야네가 들어옵니다.



**쿠사카베 린:** "아야네짱." @표정이 심상치 않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살짝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고는, 다시 원위치.



**미츠루기 아야네:** "이번 사건에 퇴마협회의 가문중 하나인 쿠사카베가문이 연관되어있는건 사실 그 때문에 본가에 연락을 취했는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주스 마신다. 쪽쪽...



**호인:** @주변을 둘러보던 세실리아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다시 이야기에 집중



**미츠루기 아야네:** "생각보다..쿠사카베 료우의 추종자가 많은것같아요"

"쿠사카베 료우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모두 종적을 감췄는데...교토의 카미가카리 절반수준이라.."

"아무래도 이곳의 지원은 무리..라고"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입니다.



**쿠사카베 린:** "그렇구나..."



**아라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 만큼의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겠지."



**쿠사카베 린:** "솔직히 나는 가문에 그다지 애착 같은 건 없지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뽀, 별반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아라쉬:**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들도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안 돼."

-



**쿠사카베 린:** "이렇게 사람끼리 싸우는 일 따위, 상상도 하지 못 했어.... 하아." @기운이 빠지는 한숨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역사적으로 사람의 적은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은 입 밖에 내지 않는걸로. 대신 주스를 좀 더 마셔요. 빨대 쪽쪽..



**아라쉬:** "카미가카리라면. 본래 모노노케와 싸우는 것이 정상이야. 사람과의 싸움은 역시 없는 편이 좋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린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해."

-



**미츠루기 아야네:** "영맥은 부를 가져다주고 또 후계자중에 카미가카리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걸 악용하지못하게 저의 미츠루기 가문을 필두로 교토의 대영맥을 특대는 도쿄의 대영맥을 그리고 하사시로의 대영맥은 둘이 힘을 합쳐 관리하고있죠"

"그걸 마음에 들지않는자들이 힘을 합친듯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결론은 밥그릇 싸움?"

@한줄로 정리해보죠.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게 되겠네요.."

"오랜세월 미츠루기 가문이 영맥을 관리해왔으니..그것에 불만을 품은 다른 가문도 있는것같고..."



**쿠사카베 린:** "카미가카리의 힘이란 건 좀 더... 멋지고 빛나는 일에 사용되는 거라고, 내심 믿었는데..." @이치노스케를 쓰다듬습니다



**미츠루기 아야네:** "저희 가문이 영맥을 독식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퍼지고있어요 부끄럽게도..저희에 불찰입니다."

@여러분께 고개를 숙이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럴 리가. 사람이 아니라 해도 다른 생명을 멸하는 일이야? 인간의 어두운 면 밖에 볼 수 없을걸."



**쿠사카베 린:** @시무룩



**와타나베 아키:** "실은..우리쪽도 그렇게 좋은상황은 아니예요. 한참 정신없을때는 영맥이 가져오는건 사건뿐이라고 생각하던사람들이 영맥의 힘을 알고 노리는 자들도 많아졌거든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린의 말에는 피식 웃으면서 중얼거리는군요. 들으라는 듯. 딱히 바라보며 말하진 않았습시다만.

**이치노스케:** [누님을 울리지 마라 토깽이!]



와타나베 아키: (ㅋㅋㅋㅋ)



아라쉬: "하지만. 카미가카리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지키는 일이야. 밝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세실리아. 너는 그렇지 않은거야?"

-



호인: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필요해서 할 뿐이지."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아라쉬: "그런가. 하지만,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런 네가. 아직 인간을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수 밖에 없겠네."

-



호인: "상처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자도 존재한다 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각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함께 움직이면 되는것이다"



Kaming (GM): 그러는사이 잠자고있던 소녀가 눈을 뜹니다.



???: ".....여기는 어디?"



이치노스케: "앗...." @아키와 아야네, 그리고 사쿠야를 번갈아 봅니다



호인: "일어났느냐"



쿠사카베 린: (아코 이치노스케로 말했네)



???: 상체를 일으켜세웁니다.

"...누구?"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호인: "무어라 설명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들은 아니니 안심하거라"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것은 어떻겠느냐"



???: "음...몸이 무거워"



코노하나 사쿠야: "아무래도 아직 움직이기엔 무리인듯하구나. 나는 코노하나 사쿠야 하사시로의 대영맥일세"



키리코: "..나는 '도쿄'의 대영맥 키리코..."

"라고 신도가 ...신도는 어디?"



호인: "신도..."



쿠사카베 린: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우리도 몰라. 어디로 끌려갔어."



코노하나 사쿠야: "그 나쁜녀석은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키리코: "신도는 나쁘지않아...나 느꼈어 신도 마음 착해. 같은 인간을 위하는 사람"

"그래서 협력."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뭐, 그렇겠지."



쿠사카베 린: "그래...."

@복잡한 얼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긍정해요.



아라쉬: "수단은 어찌됐든. 목적 만큼은 확실한 남자였으니."



호인: "의도는 좋았다"



아라쉬: "...하지만. 그 수단을 긍정해서는 안 돼."



호인: "의도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행과 세실리아의 생각은 반대겠지만, 딱히 말하진 않을게요.



키리코: "그래? 그럼 너희도 내 힘 필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죠



호인: "네 자유이나라"



키리코: "하지만 미안해 내 힘 이제 없어. 회복 시간 필요"



아라쉬: "우리로서는 네가 그 힘을 빨리 회복해서 도쿄를 안정화 시켜줬으면 해."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희생이 나올테니까."

-



키리코: "그래? 알았어. 나 회복할게"



코노하나 사쿠야: "내 힘도 조금이나마 빌려주마."



키리코: "고마워."



쿠사카베 린: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한 다른 무언가 같다'고 느낌이 듭니다. 사쿠야는 사람과 구분이 가지 않았는데...



키리코: "....."



아라쉬: "키리코라는 이름은, 신도가 붙인건가?"



키리코: "키리코...신도가 이름 줬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이름을 붙였던 건가....



키리코: "분명 자신의 딸 이름이라며 줬어 이름"



아라쉬: "...사쿠야와는 다르군. 확실히.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마술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어."



쿠사카베 린: "딸...."

(엘 이거 눈물 나오는 이야기야? 호곡...)



키리코: "신도 내힘으로 연구 계속"



호인: @호인은 착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키리코: "그런데 언제가 이상해졌어."  
"내 힘 너무 사용 자제 요청.하지만 무시.."  
"그리고 정신차려보니..이곳"



아라쉬: "그 쯤이었던게 아닐까. 미츠루기와 엮이기 시작한 건."

-  **키리코:** (쿠사카베데수)
-  **아라쉬:** (아 그렇죠)  
"쿠사카베가 무언가, 신도에게 바람을 불어넣었다던지..."  
-
-  **호인:** "가능성은 있을것이다"  
"분명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건 모르지. 어찌되었건 기계를 쓸 결정을 내린건 그가 직접 내린거잖아?"
-  **키리코:** @뭔가 허전한듯 가슴을 부분을 만진다.
-  **아라쉬:** "그래. 그 점은 변하지 않아."
-  **키리코:** "...나 영핵이 없어졌어. 이러면 회복 불가능"
-  **코노하나 사쿠야:** "뭐라..!? 영핵이..."@심각한표정
-  **아라쉬:** "영핵인가..."
-  **키리코:** "이 모습 유지하는게 이제 한계...미안 도움 안되서"
-  **코노하나 사쿠야:** "영핵은..영맥의 힘의 중추..음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것이지"
-  **아라쉬:** "하지만, 같은 영체라도 영맥의 실체화는 다르네."  
"영핵이 없어지면. 나같은 건 수십초 내로 소멸해버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영맥이 붕괴하거나 하진 않겠지?"  
@오리혀 이쪽이 걱정
-  **코노하나 사쿠야:** "지금 그녀는 내 영맥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해 형태를 간신히 유지하고있네"  
"물론 무리갈정도는 아니니 걱정말게"
-  **아라쉬:** "사쿠야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라는 건가."  
"그럼, 영핵을 되찾기 전까지 그녀를 도쿄로 돌려보낼수는 없겠는걸."  
-
-  **와타나베 아키:** "신도의 연구소에는 영핵비슷한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신도 본인이 가지고있던 모양이네요.."  
@손톱을 깨물며
-  **호인:** "그리고 그것을 탈취당했군"
-  **아라쉬:** "그렇다는건... 지금은 쿠사카베의 손 안인가."  
-
-  **코노하나 사쿠야:** "그들이 말한말이 이제 이해가는군.."  
"이제 남은건 나 하나뿐이라는 말"
-  **호인:** "그들의 영핵을 탈취해버린것인가..."
-  **와타나베 아키:** "대체 영맥의 힘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려고.."
-  **Kaming (GM):** 그때 구구구구구궁!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  와타나베 아키: "지진?"
-  쿠사카베 린: "앗...!?"
-  코노하나 사쿠야: "으음...! 틀리다 이걸!! 무언가.."
-  리포: [기, 긴급상황!]
- 직원A: "지부장님 큰일입니다! 이것을 봐주세요!"
-  쿠사카베 린: (에고 캐릭터 두 개 쓰다보니 클릭미스가 나는군)
-  호인: "!!"
- 직원A: @급하게 상황실에서 직원의 호출!
-  와타나베 아키: "가보죠!"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어디보자...
-  호인: @따라가욘
-  쿠사카베 린: @따라갑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서, 반쯤 남은 주스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따르겠네 요.
-  Kaming (GM): 상황실로 여러분이 가보면 수많은 모니터들이 하사시로 시 여러곳을 비추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모니터에서 거대한 검은 기둥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  와타나베 아키: "뭐야..저건"
-  아라쉬: "영력인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지긋이 바라봐요. 뭐지...?
- 직원A: "묘켄산.. 하사시로시 대학..미개발지구 이츠츠노미야 해변공원에서 동시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  코노하나 사쿠야: "음...저것들 이 주변의 힘을 빨아들이고있다. 무언지는 몰라도"
-  호인: "최근 일어나는 이변과 관련이 있는것인가"
-  Kaming (GM): 검은기둥은 빠르지는않지만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솟아오르고있습니다.
-  쿠사카베 린: "뭐가 일어나려는 거야....!?" @경악한 얼굴로 말합니다
-  Kaming (GM): 구구구구궁
-  와타나베 아키: "이 영력반응..계속해서 커지고있어요"
-  아라쉬: "멈추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 
-  와타나베 아키: 정보 1 공개
-  호인: "당장 출발해야겠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쿠사카베 린: (뉴스 난리나겠다)



와타나베 아키: "일단 주변에 인원 급파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직원A: "매스컴은..어떻하죠?"



와타나베 아키: "그것보다 일반인들부터 대피시켜!"



미츠루기 아야네: "저희쪽도 곧바로 인원을 파견할게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잠시 고민해봐요. 저건...본 적 있는건가...?  
@누가 일으킨 거지...?



Kaming (GM): 아뇨 저건 처음보는것 같습니다.



와타나베 아키: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저기등 심상치않아보여요.가서 조사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불길한 느낌...안좋은요.

정보원A: "지부장님!"

@헉헉 뛰어옵니다.

"신도의 사무실에서 이런노트가..!"



와타나베 아키: @받아들며

"...이게뭐지.. 기동들?"

정보 2 공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나 남았네."



쿠사카베 린: "5번째 기동....?"



와타나베 아키: "하지만 보이는건 4개뿐인데.."



미츠루기 아야네: "저희 퇴마협회 인원준비 끝났어요!"



와타나베 아키: "그러면..여러분들 아마 이 기동들의 이름들 같은데.."

@노트를 보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름이 왜?"

@뭔가 짚이는게 있나.



와타나베 아키: "굳이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꺼같아서요"



쿠사카베 린: "생명 바람 방벽 저항...."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



와타나베 아키: "숨겨진 다섯번째 기동도 신경쓰이고..갑자기 나타난 이유도.."

"일단 정보가 부족해요.흠어져서 찾아보도록 하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흠어져서...라...



아라쉬: "그렇다면. 사쿠야와 키리코는 이곳에 맡겨놔도 되겠지?"

-



와타나베 아키: "네. 보다 방비는 철저히 해놨으니깐요 사신이 온다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쿠사카베 린: "사쿠야짱은 시로짱랑 키리코짱을 돌봐줘야해?"

-  코노하나 사쿠야: "흐므 맡겨만두거라"
-  키리코: "미안 짐이되버려서"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과연 그럴까...살짝 고심하지만...뭐, 어쩔 수 없나.
-  호인: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  
"미안해할것은 없느니라"
-  와타나베 아키: "일단 퇴마협회쪽인원과 저희 인원을 나눠서 조사해보죠"
-  미츠루기 아야네: "네 저희는 어느 기둥을 조사하면..?"
-  **Kaming (GM):** 퇴마협회 인원들이 기둥을 조사해줍니다.  
네개의 기둥중 한 기둥을 조사해줘요 어느기둥을..?  
[1]생명의 기둥  
[2] 바람의 기둥  
[3] 방벽의 기둥  
[4] 저항의 기둥
-  아라쉬: 흠...
-  쿠사카베 린: 방벽과 저항은 이름만 들어도 장갑/결계랑 저항쪽인 거 같은데
-  아라쉬: 3번이 물방의 느낌이 들어
-  쿠사카베 린: 킹
-  **Kaming (GM):** 기둥은 계속 솟아오르고있고
-  쿠사카베 린: 물딜러가 많으니  
방벽쪽을 조사해달라고?
-  아라쉬: 저는 3번에 투표
-  쿠사카베 린: 이름은 분명 힌트다!  
저도 3번. 마스터는 분명 저희에게 힌트를... 읊음
-  호인: 좋아 그럼 여론에 따라 3번이로군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런 걸로.
-  미츠루기 아야네: "방벽의 기둥이군요. 알겠어요. 인원을 이끌고 그쪽을 조사해볼게요!"
-  와타나베 아키: "저는 이곳에서 상황과 전달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사쿠야씨와 키리코씨는 맡겨  
만주세요!"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등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네요  
@우리도 나가서 조사를 해야겠군...
-  쿠사카베 린: "앗 셋짱 같이 가아~"
-  **Kaming (GM):** (셋짱이라니 별명이 생겼엉)
-  호인: "부탁한다"  
@출바아알

그리고 이 씬이 끝나면

 쿠사카베 린: (레리꼬)

 호인: 감정을 취득해두게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린은 무시합니다. 엄연한 이름을 바꿔 부르다니...

 쿠사카베 린: (그러하다)

 Kaming (GM): =====  
영력굴림 스타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감정을 얻는다

 쿠사카베 린: rolling 4d6

$$( 5 + 6 + 1 + 2 )$$
$$= 14$$

 호인: rolling 4d6

$$( 1 + 5 + 3 + 4 )$$
$$= 13$$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4d6

$$( 5 + 2 + 5 + 2 )$$
$$= 14$$

 아라쉬: rolling 4d6

$$( 2 + 4 + 4 + 1 )$$
$$= 11$$

 쿠사카베 린: @감정 키리코에게 불안한 마음을, 아야네에게 믿음을

 Kaming (GM): (세실리아 영력알: 오이오이)

 호인: @감정 파티원들!

 Kaming (GM): 자 그러면

 호인: @모조리 신뢰

 Kaming (GM): 씬플레이어순서를 정해보죠  
신뢰의 d100

 쿠사카베 린: 운메이도 다이스로-루!



호인: rolling 1d100

( 21 )

= 21

언제나  
낮은 호인



쿠사카베 린: rolling 1d100 앳짜에 바사카

( 78 )

= 78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1d100

( 9 )

= 9



아라쉬: rolling 1d100

( 20 )

= 20

휘우



쿠사카베 린: 앳짜에 버서커는 과학이었다



호인: 의외로



Kaming (GM): 그러면 린부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감정 완료



호인: E등이었다고한다



쿠사카베 린: 네넴



Kaming (GM): 일단 기둥이 발견된 장소는 4곳



쿠사카베 린: 초대는 전원 하구...



Kaming (GM): 그 중 한곳은 퇴마협회측이 조사해주고 있지요.



쿠사카베 린: 생명 바람 저항 중  
어디부터 가볼까요?  
솔직히 정보가 없어서



호인: 생명가볼까요



쿠사카베 린: 그럼 렛츠 고

Kaming (GM): 산을 타는가



쿠사카베 린: 등산판정 네버...  
네버 등산판정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흠...안받기로



Kaming (GM): 꼭 다 몰려갈필요없이 흩어져도 되구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흩어집니다



쿠사카베 린: 오홍오홍



Kaming (GM): 넹  
다른분들은?



호인: 저는 세실리아를 따라갈게요



아라쉬: 저두



호인: 혼자서는 위험해...라고 하면서  
잠깐  
아라쉬가 세실리아에게 가면  
린에겐 호인이 갑니다



Kaming (GM): 린은 이치노스케랑 단둘이..



쿠사카베 린: 혼자 남겨질뻔



호인: 1인2역은 안돼..



Kaming (GM): 혼자가 아낀



쿠사카베 린: 쓰, 쓸쓸하지 않은 걸! (...)



Kaming (GM): 둘이얏



쿠사카베 린: 그래 둘이예요  
ㅋㅋㅋ...



호인: 호인이 린과 함께 합니다



Kaming (GM): 네 그럼 등장하시는 분들은  
등장판정  
굴굴



호인: rolling 2d6+1

( 3 + 1 )+1

= 5

3과 1을 교환



Kaming (GM): ㄴ[  
네



호인: 안되는줄알았어요

 **Kaming (GM):** 성공

 아라쉬: rolling 2d6

( 3 + 2 )

= 5

성공

 호인: 예?

 **Kaming (GM):** 아라쉬도 등장인가여?

 호인: 아라쉬도 오나요

 아라쉬: 어?

아

 호인: 저 지금 혼란스러운데

 아라쉬: 린씬이구나

 쿠사카베 린: 일ㅋㅋ

그럴수도 있죠(저도 그랬던듯)

 아라쉬: ㄸㄸㄸㄸ

-

 쿠사카베 린: 린+호인으로 렛츠 고오

 **Kaming (GM):** 그러면 아라쉬꺼는 넘어가고

넵

=====

그러면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조사하기로 하고

린과 호인은

묘켄산을 오르고있습니다.

 **Kaming (GM):** 오르는 도중에도 보일만큼 솟아오르고있는 기둥이 보이겠네요

그 기둥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있구요.

이 주변은 통제되었는지 일반인은 눈에 보이지않습니다.

 쿠사카베 린: 그렇군요

@이치노스케에 얹혀서 이동 중

 **Kaming (GM):** 그렇게 오르다보면 기둥이 솟아오르는곳까지 도착합니다.

땅을 뚫고 나온듯한 모양이군요.

 호인: "이놈이 원인인가"

 **Kaming (GM):** 주변 땅이 갈라져있습니다.

 쿠사카베 린: "주변에 이상은, 음...."

@살펴봅니다

호인: @호인은 기둥을 주먹으로 쳐봅니다

오랴!

 **Kaming (GM):** 딱딱하군요  
린은 조사?

 호인: 딱.딱

 **Kaming (GM):** 호인의 주먹이 아플정도입니다.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그리고 어쩐지 주변의 녹색빛이  
기둥속으로 들어가는듯하기도.

 호인: @으잉 아파ㅜㅜ

 쿠사카베 린: (앗... 녹색 방지!)

 호인: (나의 힘을 조심해라!

 **Kaming (GM):** 린은 어떤식으로 조사하나요

 쿠사카베 린: 음 호인이 일단 기둥쪽에 갔으니  
저는 주변에 이상한 영력의 흐름이나  
눈에 띄는 특이점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싶어요

 **Kaming (GM):** 흠 탐색이려나요?  
감지나

 쿠사카베 린: 그럼 탐색으로

 **Kaming (GM):** 행운판정 난이도는 10

 쿠사카베 린: 넵

rolling 2d6+6

( 5 + 2 )+6

= 13

 **Kaming (GM):** 성공  
그러면 린은

 쿠사카베 린: (후우)

 **Kaming (GM):** 주변의 녹색빛이 생명에너지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힘이 기둥속으로 빨려들어가고있어요  
정보3공개

 쿠사카베 린: (으엘 이거 위험한 거다)

 **Kaming (GM):** 리포에게만 공개됐어영

 쿠사카베 린: 같은 씬에 있는 호인과 공유합니다  
다가가서 말했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Kaming (GM):** 공개완료

 기둥이 솟아오를수록 기둥의 힘도 강해지는데 합니다.

 호인: "불길하기 짝이 없구나"  
"손을 써야할거같구나"

 쿠사카베 린: "이대로 놔둘 수는 없겠지"  
"함께 쓰러뜨리자!"

 호인: "해보자구나"

 이치노스케: [안전모 착용해주세요]

 호인: 체력 16으로  
가볼까!

 Kaming (GM): 아뇨 맨앞에게 난이도.

 쿠사카베 린: (아 그러고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이치노스케 등장시키고 있었다. 영력은 3 깎아둘게요)

 호인: 12인가요

 Kaming (GM): 체력으로 하면 12조

 쿠사카베 린: 제 믿을 곳은 행운뿐이군...  
행운 14도전!

 Kaming (GM): 네 먼저 호인부터 해주세요.

 호인: 도오오저어어어언

 Kaming (GM): 한분만 성공하셔도 됩니다.

 호인:

( 5 + 6 )+9

= 20

 Kaming (GM): 끼요오옷

 호인: 핫하!

 쿠사카베 린: (오오오오)

 Kaming (GM): 성공

 호인: 기둥에손을 대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쿠사카베 린: (이거슨 즉 호인의 발경편치에 나가떨어진 것인가...)

 Kaming (GM): 호인에 손에 기둥안에 생명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호인: 흐름을 끊기위해 자신의 영력을 집어넣고 탑의 내부부터 뒤흔들어놓을수 있을까요  
(키x이 선생처럼

 Kaming (GM): 네

 호인: @손바닥을 대고 그대로 쿵!



쿠사카베 린: (스고이 호인 스고이)



**Kaming (GM):** 그러자 기둥이 기이이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느려지더니  
더이상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이치노스케: [이건 평가받아야할 기술]



**Kaming (GM):** 그리고 호인의 손에는  
기둥안에 들어있던 생명의 힘이  
원석의 형태로 남아있네요  
[소비 아이템] 생명의 원석: 사용시 생명력을 20회복한다. 준비를 소모하지않는다.  
호인과 린에게 단서 전달  
그리고



**Kaming (GM):** 기둥에 적힌 글씨가  
기둥의 단서인것을 린과 호인은 알아차리죠



호인: "이것은..."



쿠사카베 린: "물...?"



**Kaming (GM):** 솟아오를때는 보이지않더니 멈추고다니 보이는군요



호인: "무언가 뜻이 있는듯 하구나"  
"일단 당장은 멈춘듯 보이니 나중에 둘에게 알려주도록 하자꾸나"



쿠사카베 린: "응, 그게 좋을 거 같아"



**Kaming (GM):** [소비 아이템] 생명의 원석: 사용시 생명력을 20회복한다. 준비를 소모하지않는다.  
얻어주시구  
호인이나 린



호인: 적었습니다!



**Kaming (GM):** 넵



쿠사카베 린: 피 달기 쉬운 호인이가 갯또



호인: 감사합니다



**Kaming (GM):** 기둥은 작동을 멈춘듯 우뚝 서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묘켄산에서 내려다보니.  
아직 솟아오르고있는 3개의 기둥이 보이겠네요.



호인: "가자꾸나"  
@린과함께 산을 내려가



쿠사카베 린: "응."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탁탁탁



**Kaming (GM):** 씬아웃?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

다음은 호인이지만

 쿠사카베 린: 그런고로 영기울을 써서 5를 4로

 **Kaming (GM):** 흠어진 둘을 먼저해보죠

네

 호인: 넵

 **Kaming (GM):** 그런고로 아라쉬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저는 자동 초대된거겠쥬

 **Kaming (GM):** 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  )

=

6을 2와 교환

 **Kaming (GM):** 그렇겠..저?

(아라쉬"그런거없다 걸어와랏")

스페셜은 교환 불가데수우

대신 임의영력 바꿔주시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결과는 마찬가지로...!

 **Kaming (GM):** @그러하다

아라쉬가 기세소실을 사용했다

 아라쉬: ㅇㅂㅇ

죄송합니다

 **Kaming (GM):** 아라쉬와 세실리아는

 아라쉬: 자꾸 전화가 와서

 **Kaming (GM):**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아라쉬: -

방벽으로 갈까염

 **Kaming (GM):** 방벽은 퇴마협회가 조사해준다고 했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조사해준다고 했지 철거 해준다고 하진 않았ㅇ...)

 **Kaming (GM):** 그렇정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가 씬플이니 아라쉬가정해야)

 아라쉬: 흠

그럼 바람으로 가쥬

**Kaming (GM):** 넵

=====

이츠노미야 해변공원

많은사람들이 있던곳이라 기둥때문에 다친사람이 많은지  
여기저기 구급차와 통제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기둥은 계속해서 높이 솟아오르고있고



**Kaming (GM):** 기둥 주위에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있습니다.

접근하기조차 쉬워보이진 않군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귀가 차가우니 구비해뒀던 모자를 꼭 눌러 쓰도록 합니다



**Kaming (GM):** 기둥이 솟아오를수록 그 기세도 강해지는데 합니다.

휘이이이이잉



**아라쉬:** "페르시아에서 올라본 고산 정도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바람인데."

"진(정령)이라도 있는걸까."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글쎄....."



**Kaming (GM):** 땅이 갈라져있는걸보니 이 역시 땅에서 솟아오른듯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솟아오르는 기둥을 노려보죠...

@다가가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떨어져서....

"뭐하러 이런걸 도시 한복판에?"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바람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봐요.



**Kaming (GM):** 자 어떻게 조사해보시나요?



**아라쉬:** 이 강풍으로는 활도 쓸 수 없을테니..

기세소실을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만

어떤가요?



**Kaming (GM):** 흠 바람에 견디는거니 내성판정값군요.

체력 난이도는 12



**아라쉬:** 체력이라면

걸의 직업으로

달성치에 +2



**Kaming (GM):** 스고이



**아라쉬:**

(  +  )+8

=



**Kaming (GM):** 성동



아라쉬: 호잇



Kaming (GM): 공



아라쉬: 5를 4랑 교환



Kaming (GM): 아라쉬는 바람을 해치며 기둥에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아라쉬가 가까워서 보니 기둥이 주변의 바람들을 흡수하며

그 때문에 주변 바람이 요동치는거였군요

정보 4공개

아라쉬에게만 공개됐습니다.

기둥이 솟아오를때마다 그 바람의 강도가 쎄지는걸보니



아라쉬: 일단 알게된걸 전달할 수 있는건 세실리아에게 켜군요



Kaming (GM): 시간을 지체하면 더 힘들어질꺼같군요.

공갱

판정은 제일 왼쪽수치가 난이도.

한사람만 성공하셔도 기능정지됩니다.



아라쉬: 그럼. 민첩으로.



Kaming (GM): 네

민첩 난이도 12



아라쉬: 그럼

민첩 7에

표면직업으로 +1 보정



Kaming (GM): 사..스고이



아라쉬:  $\text{rolling } 2d6+8$

$(1 + 3) + 8$

= 12

높을수록 좋은건가염?



Kaming (GM): 아뇨



아라쉬: 아니면 강 12만 넘으면

오케이?



Kaming (GM): 높은건

이제 시간지날수록 늘어나는

난이도입니다.



아라쉬: 아항~



Kaming (GM): 네 그럼 성공



아라쉬: 롤플레이

음...

빨아들이는 바람에 민첩으로 했다면.  
 손에 활과 화살을 꺼내 들더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엉뚱한 방향을 보며, 활을 발사하겠네요.  
 그럼. 화살이 바람을 따라 기둥의 주변을 회전하다가.



아라쉬: 빨려 들어가듯 기둥을 꿰뚫어버립니다

-



**Kaming (GM):** 파악!

소리와 함께  
 기둥은 점점 멈추더니  
 미동도하지않습니다  
 동시에 주변을 감싸던 바람도  
 갈길잃은체 흩어져버리죠



**Kaming (GM):** 그리고 툭



아라쉬: (툭에엏)



**Kaming (GM):** 하고 아라쉬앞에 원석의 형태의 돌이 떨어지는군요  
 [소비 아이템]바람의 원석:사용시 그 턴동안 능동판정+1 수동판정+1  
 그리고 기둥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서전달  
 구궁....  
 기둥은 우뚝 서있군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아라쉬: "흐음...?"



**Kaming (GM):** 기둥은 완전히 정지한거같습니다.



아라쉬: "멈춘것 같네."

"기둥은 두개를 잇는 거대한 길... 인가. 이걸, 다른 기둥도 멈추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려나."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른 데 가는게 좋겠네."

"어찌 될지 모르고."



**Kaming (GM):** 이제 다른 기둥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 쪽에서도 단서를 캐내지 않으면...



**Kaming (GM):** 멀리서도 확인될만큼

높게 솟아올랐군요  
 묘켄산쪽을 보니  
 이쪽과 비슷한시간에 정지된듯  
 멈춘듯하네요  
 호인들이 해낸듯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남은건..."

@방벽이랑...

 **Kaming (GM):** 솟아오르고있는 두 기둥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저항인가...  
@그럼, 그 기둥들 중 하나 쪽으로 걸음을 옮기겠군요.

 쿠사카베 린: (이 느낌이면 각각 결계라도 치고 있으려나)

 아라쉬: 그럼 세실리아가 가는 쪽으로 같이 걸어갑시다  
아니. 차 타고 가자!

-  
 **Kaming (GM):** ㅋㅋㅋ  
=====

 호인: 아스가  
면허맨

 **Kaming (GM):** 자 그러면 호인씨플레이어

 호인: 어차피 남은건한곳!  
결계타워로

 쿠사카베 린: 초대에 응한다아

 호인: 전원 초대

 쿠사카베 린:   
  
=   
뭐 거리상 저뿐이겠지만

 호인: 그리고 도착하면 둘과 정보를 교환

 **Kaming (GM):** 초대 받으시나요?

 호인: 그렇긴 하겠군요

 **Kaming (GM):** 다른 두분은  
같은곳으로 향했다고 할 수도있고

 쿠사카베 린: 1이랑 5를 체인직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걷는건 귀찮으니 아라쉬 차를 타고 이끌려갑시다...

 쿠사카베 린: 아 2랑 5  
완룻

 **Kaming (GM):** 아라쉬가 초대받으면 받으시겠다는거군  
넵

 아라쉬: 저항으로 가는거였죠 저희는?  
부릉  
-

 **Kaming (GM):** 호인도 저항으로 가는듯하지만  
맞쵸?  
결계라고 하셔서

 **아라쉬:** 아 그렇지  
하나를 조사하니까  
결국 하나 남은거구나  
그럼  
등장판정 해야겠네요

 **쿠사카베 린:** 즉 전원등장...!

 **Kaming (GM):** 그렇게되는군요.

 **쿠사카베 린:** 레리꼬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

( 2 + 5 )

= 7

 **아라쉬:** rolling 2d6

( 5 + 6 )

= 11

 **Kaming (GM):** 넵넵  
성공

 **아라쉬:** 2랑 6을 교환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5와 2를 교환, 6555 로

 **쿠사카베 린:** (oh...)

 **Kaming (GM):** ㅎㅎㅎ  
=====

-미개발 지구-  
다행히 사람이 적은곳이라 다친사람은 없지만  
주변의 물자들이 기둥에 날라가  
어지럽혀져있습니다.

 **Kaming (GM):** 여러분들이 도착했을때는  
이미 기둥은 꽤 높아져있네요.

 **쿠사카베 린:** 합류했다면 정보공유다앗

 **호인:** @일단 먼저 들어가다가 둘과 만나게 되겠군요  
공유공유

 **쿠사카베 린:** 공-유공유공유공유공유! (DIO풍)

-  **Kaming (GM):** 그리고 걸보기엔 다른 기둥들과 같지만 여러분 눈에는 겹겹히 쌓인 결계들이 기둥을 감싸고있는게 보일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군요.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귀찮게 해놨네에..."  
@결계를 보며 중얼중얼
-  쿠사카베 린: "흐음, 간단히 부술 수는... 없겠지. 응."
-  호인: "기묘하구나..."
-  아라쉬: "흐음..."  
-
-  **Kaming (GM):** 전달완료  
단서랑 정보3
-  쿠사카베 린: 네넵
-  호인: "그렇다고 가만 놔둘수도 없는 일이다
-  **Kaming (GM):** 기둥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결계는 갈수록 쌓여갑니다.
-  쿠사카베 린: "아직도 점점 오르고 있어..."
-  아라쉬: "서두르자."  
-
-  호인: "빠르게 처리해야겠군"  
(행운고자의 말이였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좋아..."  
@그럼 결계에 천천히 다가가서 손을 대보죠.
-  쿠사카베 린: (웃...)
-  **Kaming (GM):** 세실리아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마력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  **Kaming (GM):** 결계로 다가가면...  
가까워지지않습니다.  
아니 결계에 손을 대려는순간  
다시 어느세 멀리와있어요  
시간이 되돌아간것처럼..
-  쿠사카베 린: 저희들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나요?
-  **Kaming (GM):** 네
-  쿠사카베 린: "...어..."
-  **Kaming (GM):** 분명 멀어지던 세실리아를 바라보는데 어느순간 다시 와있으니
-  쿠사카베 린: "이래서 '저항'인 걸까?"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  호인: "법칙장애..."  
"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구나"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가가는 걸 거부하는건가아..."
-  아라쉬: "올바른 루트가 있는건가?"
-  **Kaming (GM):** 기둥의 영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초상현상을 유발할 수 도 있다고했죠  
높아질수록 영력이 강해지는 기둥이 점점 높아지자 주변의 환경이 변해버린듯합니다. 우선 이걸 해쳐나가야할  
꺼 같네요.  
감지 난이도: 10/13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렇구운..."
-  **Kaming (GM):** 네 법칙장애 맞습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해보죠
-  호인: 호인도 도져어어언  
은 세실리아가  
있으니까 관참을거야
-  **Kaming (GM):** 냅 세실리아부터 보죠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
-  **Kaming (GM):** 싯빠이
-  쿠사카베 린: (감지, 행운...)
-  호인: 감지니까 행운이려나요
-  **Kaming (GM):** 네
-  호인:
- =
- 띠요옹
-  **Kaming (GM):** 호인 일부 성공
-  쿠사카베 린: oh...  
아라쉬 영력교환용으로 굴리시나요?
-  **Kaming (GM):** 호인 영력조작?
-  호인: 해도 12까지가 한계라서  
힘들거같네요
- 아라쉬: 흠

행운

 **Kaming (GM):** 그렇군요

 **아라쉬:** 안될것 같지 않으니  
함 굴려보죠

 **Kaming (GM):** 냅  
굴굴

 **아라쉬:** rolling 2d6+4  
  
( 2 + 6 )+4  
  
= 12

 **Kaming (GM):** 12일부성공

 **아라쉬:** 2를 4랑  
교환

 **쿠사카베 린:** 오홍홍

 **Kaming (GM):** 14로 성공  
정보공개

 **쿠사카베 린:** (체력인가)

 **아라쉬:**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이런건 어때."

 **Kaming (GM):** 참 아라쉬팀들도 정보 공유했던가요?

 **아라쉬:** 냅  
그럼. 화살을 걸고 쏘아보더니. 화살이 날아가다가. 다시 바로 앞으로 돌아오고 날아가고 돌아오고를 반복하겠  
네요  
"이건. 공간이동보단 시간이동인가?"

-

 **호인:** "그런것 같군"

 **쿠사카베 린:**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Kaming (GM):** 네 아라쉬 말대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뭐가 되었건 귀찮네에."

 **Kaming (GM):** 화살은 날아가고 돌아오고를 반복합니다.

 **호인:** "영력의 흐름을 뒤바꿔보자구나"

 **Kaming (GM):** 소거판정은 체력 11  
4인

 **호인:** 벌써부터 태우긴 좀 그러니  
아라쉬랑 제가 난이도 높여서 해볼까요

**쿠사카베 린:** 체력 1...

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체력 2...11이면 할만한데

 호인: 자자 어떻게 할까욘

 아라쉬: 그렇게 하죠  
체력은 8!

 호인: 체력 9

 Kaming (GM): (영력조작도있으니..)  
@소근소근

 호인: 그러쿤  
영력 조작!

 Kaming (GM): (높은숫자 다들 가지고 계시는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흠...편하실대로)

 Kaming (GM): 자 그러면  
전원도전  
아니면 일부만..?

 아라쉬: 저랑 호인 둘이서만  
가죠

 이치노스케: [파이토다요!]

 Kaming (GM): 난이도 2x2상승해서  
15

 호인: 요오시

rolling 2d6+9 그란도시즌

( 1 + 3 )+9

= 13

제기랄

1과

3을 교환

3+3+9

 호인: 로 성공

 아라쉬: rolling 2d6+8

( 2 + 6 )+8

= 16

평범하게 성공

Kaming (GM): 네 그러면 두분이서 법칙장해를 해쳐나가는군요!

 (체력과물들 무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뒤에 앉아서 구경이나....

 아라쉬: "이런 현상이야. 분명 유지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거 아닐까?"

 호인: "영기의 흐름을 간파해보겠다"

"틈을 노려서 쏘면 될것이다"

@호인이 허공에 발경!

하면 공간이 일그러지듯이 틈이 생기고 그곳을 아라쉬가 간파하여 쏘는것으로 표현하면 될거같군요

 아라쉬: 핑!

-

그럼 접근을 방해하는 술식을, 영력화살로 찢어낸걸로

-

 호인: 굳

 Kaming (GM): 네

그러면 반복되던 화살이

기둥의 결계에 꽂히는게 확인되네요

 호인: "성공했는가"

 아라쉬: "화살의 루프가 멈춘걸 보니. 그런것 같네.

-

 Kaming (GM): 이제 기둥에 대해 조사 할 수 있을꺼같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어느새 기둥 쪽으로 다가가 있겠군요

 Kaming (GM): 빨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자세히 살펴보고...아래 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손을 슬쩍 대서 영력의 흐름도 느껴보고...

 호인: 하야이 데수웅

 쿠사카베 린: 3배 신속한 셋짱..

 Kaming (GM): 감정이나 탐색판정이겠군요

지성판정 난이도 11 행운판정 난이도 10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지성으로

 Kaming (GM): 압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아니...)



호인: 스베살



Kaming (GM): 네 임의에 영력 바꿔주시고



쿠사카베 린: 으아닛 슷고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5를 6으로...



Kaming (GM): 세실리아가 살펴보니 이 기둥은 주변의 영력을 흡수해 결계를 쌓고있었군요.  
세실짱에게 정보전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런 효능인가...역시 귀찮게."  
@공개해버렸



Kaming (GM): 기둥이 높아짐에따라 난이도도 상승  
두번째 난이도로 이행



아라쉬: (정신이 제일 쉽네요)



Kaming (GM): 정신 난이도 15  
아니  
14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지성 16...

rolling 2d6+9

( 5 + 4 )+9

= 18



Kaming (GM): 히익  
높아  
성공



쿠사카베 린: 옴마야



호인: 높은거시다



쿠사카베 린: 사스가 세실리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기둥에 손을 대고...눈을 감고 중얼중얼 거리면  
@분홍빛 오라가 피어오르더니, 기둥이 그대로 오르지 않고 멈춰버리겠네요.



Kaming (GM): 기이익..  
기둥이 멈추자  
주변의 결계도 조금씩 사라지더니..  
세실리아의 손에 결정이 쥐어집니다.  
[소비 아이템] 저항의 결정: 데미지적용시 사용. 자신이 받는 마법데미지를 [반감]한다  
그리고 정지한 기둥에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게 핵심..."



Kaming (GM):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쿠사카베 린: (어라 두개의 거대한 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시...?"  
@잘은 모르겠군요



**Kaming (GM):** 3개의 단서가 모였군요.  
그렇게 3번째 기둥을 정지시킨뒤.  
세실리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띠리링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누구?  
@슬쩍 봅니다만.



**Kaming (GM):** 미츠루기 아야네의 번호군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받습니다.  
"네."



**Kaming (GM):** 아키였으면 안받았을꺼같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안받았지.



미츠루기 아야네: "아 여보세요 세실리아씨. 방벽의 기둥 조사가 끝났어요."  
"하지만 도착했을때는 너무 높아져서..저희로써는 정지까지는 무리였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래서?"



미츠루기 아야네: 정보 5전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거봐 우리가 갔어야했어)



미츠루기 아야네: 전체공개입니당



아라쉬: (스마나이)  
(아 그래도 지성 16이면)



쿠사카베 린: (흑흑)



아라쉬: (세실리아가 어떻게든.)



미츠루기 아야네: 3단계입니다.  
지성 16데수우



쿠사카베 린: (꽤 높아졌군)  
(세실리아 정신자동성공 있지 않던가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지성 16



미츠루기 아야네: "더이상 높아지면 큰일이에요 부디 지원을..!"



쿠사카베 린: (아 코스트소모인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을 쓰지 않고 5를 써서 정신 자동성공.



**Kaming (GM):** 그리고 뭔가  
지지지직  
거리더니  
통화가 종료됩니다.



호인: "무슨일이더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정말 도움 안되네."

@그럼, 전화를 끊고...

"나머지 기둥. 못 멈췄대."

"직접 가야돼."



Kaming (GM): 그와중에 기둥은 높아지고있군요 호텔정도의 높이..



아라쉬: 어느새 차에 타있습니다

"가자."

-



호인: "좋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두말 없이 탑니다. 앞좌석에.



호인: @호인은 바깥에서 직접 씹니다



쿠사카베 린: 저는 타고



이치노스케: 애는 차 위에



Kaming (GM): (ㄷㄷ)

=====

자 그러면 세실리아짱

차례

참고로

단서로 추리가 되셨다면



Kaming (GM): 그쪽을 가셔도 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몰라 그런거



쿠사카베 린: 지금 모인 정보가

물이 흐르니 노래소리가 아름답다

두 개의 길이 다리가되더라

거대한 길이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세실리아는 모른다



쿠사카베 린: 저는 정보가 없는데

받은 정보 있으신 부운



Kaming (GM): 단서공개는 저게 전부

마지막은

방벽단서가 남았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정보7번 전체공개로 돌렸?)



쿠사카베 린: 저항 단서가 뭐였죠?



Kaming (GM): 넹



아라쉬: 기둥의 주변은 언제나 소란스러움



쿠사카베 린: 7번이 아라쉬 씬플레이어일때 깡 두개를 잇는 거대한 길...  
주변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Kaming (GM): 추리브금인거시다



쿠사카베 린: 물이 흘러 노랫소리가 아름답고, 두 개의 길이 이어져 거대한 길이 되고, 주변은 소란스럽다  
강이네요  
아마도  
아



호인: 저수지?



쿠사카베 린: 기차길  
인가



호인: 아 기차길  
그걸 생각못했네



Kaming (GM): 참고로 잘못찾아가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쿠사카베 린: 10번 JR타이하쿠역?  
흐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세실리아는 그런거 몰라오  
@너무 어린거에오



Kaming (GM): (어른이 인거시다)  
(속은 40대..읍읍!)



쿠사카베 린: 지금 이 씬과 씬의 사이는 정신과 시간의 방  
외부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



호인: 모르겠다  
탐 죄다 뽀갯시다  
보스 강화는



쿠사카베 린: 네옹



호인: 막아야해



Kaming (GM): 자 세실리아  
어디로 가시나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딴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대로 가겠쵸  
@마지막탐으로?



쿠사카베 린: 레리꼬오



Kaming (GM): 레리꼬오  
등장인물 초대해주시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원이겠쵸



Kaming (GM): 등장판정 고고우



쿠사카베 린: rolling 2d6

( 3 + 5 )

= 8

5와 1 체인지이



호인: rolling 2d6

( 4 + 1 )

= 5

바꿀게 읊다..



아라쉬: rolling 2d6

( 1 + 4 )

= 5

2를 사랑..



**Kaming (GM):** =====

그러면 아라쉬가 열심히 차를 타고 대학가로 가면  
주변은 철저히 통제되어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하고  
기둥 주위에는 퇴마협회 일원들과 아야네가 있군요.



미츠루기 아야네: "아 오셨군요."

@반가운표정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또 빛이 늘었네, 총수대행?"



쿠사카베 린: "아야네짬앙~" @손 흔들흔들



호인: @착 하고 착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차에서 내리면서 씨익 웃어요.



미츠루기 아야네: "웃..."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사냥감을 눈 앞에 둔 포식자의 눈이군요



미츠루기 아야네: @포식자를 앞에둔 초식동물의 눈이죠



아라쉬: "너무 겁주지 마."

쓴웃음을 지으며



미츠루기 아야네: @토끼가 포식자라니 채소인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괜찮아, 잡아먹지 않아?"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둥 쪽으로 향합니다.



미츠루기 아야네: "잠..가까이 가시면!"



아라쉬: "해제 방법은 생각해놨을거야."



쿠사카베 린: (과연!)



Kaming (GM): 아야네의 경고와함께  
세실리아는 영력의 소용돌이에 밀려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호인: "또 이건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움짤 하면서 밀려나면...한숨.



미츠루기 아야네: "주변의 영력들이 기둥에 반응해서 날뛰고있어요"  
"덕분에 저희도 지금 이렇게 물려나있는거구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아, 정말 짜증나게."



미츠루기 아야네: 법칙장해 1 공개



쿠사카베 린: 지성인가ㅏ



호인: 지성이3...  
흠터레스팅...



쿠사카베 린: 드디어 나의 활약장소가  
왔도다



호인: 린!  
일한다!



쿠사카베 린: 인-텔-리  
스-마-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법칙 2가 없군)  
(어딘가에 빠져있단 건데...)  
(흐음.)



쿠사카베 린: (아마 힌트에 도달한 곳에)  
(있지 않을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꽤 힘들겠는데..."



쿠사카베 린: "여기야말로 나의 고저스한 인텔리전스를 선보일 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몇명이 참여?)



미츠루기 아야네: "조심해요 린"@너무 혈기왕성해서 걱정된다.



호인: 흠터레스팅...  
14라면  
호인의 최대 기대수치가  
15인데  
이건 거의....



Kaming (GM): 1차이 ㅋ

 쿠사카베 린: 어렵네요

 호인: 령문연소를 해야하나

 아라쉬: 후음

 쿠사카베 린: 어디보자 지성수정치 8이고  
6도 있으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9 8...둘이 가죠.

 Kaming (GM): 기둥의 형태는 수많은 방벽들이 기둥을 감싸고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기둥이 솟아오를때마다  
두께가 두꺼워지고있다는 느낌이네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4이상만 뜨면 된다...

 Kaming (GM): 둘이서만하나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참여.

 쿠사카베 린: 네 둘이서 소거할게요

 Kaming (GM): 인원수 1명 줄이는거죠?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난이도2 증가  
지성 16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Kaming (GM): 오오

 쿠사카베 린: 오오오...

 Kaming (GM): 성공

 쿠사카베 린: 린 이끼마스

=

 Kaming (GM): 그렇게 펌블  
뿔

 쿠사카베 린: 마스터가 저주를 내리고 있어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따라올 자신 있어?"
-  Kaming (GM): 린과 세실리아 둘이서 영력폭풍을 잠재우는군요! 멋져라
-  쿠사카베 린: "알보지 말라구~" @팔 붕붕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린에게 슬쩍 한마디 하면서 앞으로 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영력을 일으켜서 진입을 거부하는 영력 폭풍에서 버틸 배리어를 치네요.
-  쿠사카베 린: @네가 무엇을 위해 있느냐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리고 배리어를 점점 늘려서 기둥까지 쪽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줘요.
-  이치노스케: [옛스 맴]
-  Kaming (GM): (고기방패노스케)
-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의 은근한 움직임으로 바람을 빗겨내며 전진
-  Kaming (GM): 차마 보고싶지않은 장면이겠군요  
아야네들도 그모습에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  쿠사카베 린: 하지만 세실리아가 길을 만들어줬었다!
-  이치노스케: [5회전 반 플립!] @피겨 스케이팅
-  호인: @그 장면을 똑바로 보고있겠습니다
-  Kaming (GM): 그러면 영력폭풍은 둘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이내 힘을 다했는지 서서히 약해지더니  
무풍상태가 되는군요  
남은건 기둥뿐
-  쿠사카베 린: "바람도 멧었네"
-  Kaming (GM): 시간을 지체해서인가 기둥은 호텔정도의 높이로 올라가있습니다.  
어디까지 솟아오를 예정인지..  
3단계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지체하지 않고."  
@정신판정.
-  Kaming (GM): 넵  
난이도 18
-  쿠사카베 린: "여차하면 이치노스케 비장의 무기인 ★★★★★을 써도 괜찮을 거야"
-  이치노스케: @치마(?) 밑을 뒤적거리고 있다...
-  Kaming (GM): (네오 암스트롱 제트 암스트롱 포)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코스트 5 써서 신비의 위엄.
-  Kaming (GM): 넵  
자동성공!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단이긴 하지만 이래봐도 신의 핏줄이라고...알보지마!"  
@짜증나서 외치면서, 강한 영력을 일으켜서 기둥을 퍽 쳐버려요.



**Kaming (GM):** (이단!)



**쿠사카베 린:** (세실리아 멘탈 파워 슛고이)  
(그 한 방에)



**Kaming (GM):** 찌억..  
방벽에 금이가더니..  
이후 방벽이 모조리 벗겨지며  
기둥은 정지합니다.



**아라쉬:** "...세실리아는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치노스케:** [괴력녀 속성 Get....!]



**아라쉬:** -



**Kaming (GM):** 이후 방벽의 결정이  
땅에 툭 떨어집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별로 현실 물리력은 아니었지만...



**Kaming (GM):** [소비 아이템] 방벽의 결정: 사용시 그 전투동안 장갑또는결계를 2상승한다.



**호인:** "일은 해결됐는가..."



**Kaming (GM):** 기둥에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러네."



**호인:** "이것으로 남은 기둥은 하나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결정은 아무나 가져가게 두고...



**호인:** "그 종이에 적혀있는게 사실이라면 말이다"



**아라쉬:** 히사시로 대교  
인듯



**호인:** 와우 장갑 결계를상승시킨다면  
나의것



**Kaming (GM):** 단서는 모두 모였군요



**호인:** 근데 기둥의 단서는  
왜 저는  
두개를 잇는 거대한길  
밖에 안보이는걸까요



**쿠사카베 린:** 저도



**Kaming (GM):** 다시 키시면 보일듯?



**쿠사카베 린:** 저거 하나밖에 안 보이다보니



**아라쉬:** 저는 다 보이는데



**호인:** 꺾다 다시켜도

음..

잠시



쿠사카베 린: 음 7번까지만 활성화 상태에음



아라쉬: 숨겨진 기둥의 단서

[1] 기둥의 주변에 물이 흐르니 그 소리가 아름답다.

[22] 기둥은 두개를 잇는 거대한 길

[31]기둥을 지나니 즐거움이 한가득

[38]기둥의 주변은 언제나 소란스러움



쿠사카베 린: 새로고침을 해볼게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7번인데)



Kaming (GM): 7번에 추가한건데



리포: 아 새로고침하니 됐네요



악동양반: 좋아

보인다



쿠사카베 린: 컴이 오래돼서 그런감...



Kaming (GM): 단서는 모두 모였고 이제 장소를 추리하는 일만 남았군요  
추리의 브금!



악동양반: 하사시로 대교인가



쿠사카베 린: 즐거움이 한 가득...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시계탑."

"아니면 그랜드 호텔...?"



호인: "물이흐른다 두개의 길과.....즐거움이 한가득"

"주변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쿠사카베 린: "소란스럽단 건 변화가를 얘기하는 걸까?"

"하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예상은 대충 가지만 확정적인건 아니야...



쿠사카베 린: (아 혹시)

(파크랜드의 청룡열차 같은 건가...?)

(기둥은 관람차고)



호인: (지금 추론한것으로는

시계탑 근처에서

하사시로 파크랜드까지가

범위가 되겠군요

흩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쿠사카베 린: 넓지만 그래도 꽤 좁혔군요



Kaming (GM): 흐뭇한 표정

 쿠사카베 린: 흠어져서 한 명이라도 찾으면 바로 연락해서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호인: 네  
시계탑에서부터

 아라쉬: 그럼 일단 차를 끌고

 호인: 파크랜드까지가 범위입니다 아마도?

 아라쉬: 히사시로대교 방향으로 향하는걸로

 호인: 호인은 여전히 차를 뒤따라 뛩니다

 쿠사카베 린: 아까의 포지션으로 탑승

 Kaming (GM): 좋습니다. 그러면 씬아웃하고 찾아가보죠  
=====  
다시 신뢰의 d100

 쿠사카베 린: 앗짜에 바-사-카!

 Altr: @흠...

 쿠사카베 린:

( 86 )

= 86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72 )

= 72

 호인:

( 46 )

= 46

 아라쉬:

( 48 )

= 48

린세아호



**Kaming (GM):** 그러면

린부터군요

린의 추리는 어디를 향할까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카밍의 아까 흐뭇 이 걸린단 말이지..)



**쿠사카베 린:** 다들 흩어져서 찾는 거죠?



**Kaming (GM):** (난데야)



**호인:** (뜸뜸



**쿠사카베 린:** 저는 파크랜드에 한 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른 쪽을 찾아보자...)



**쿠사카베 린:** 레리꼬

일단 초대는 전원에게 넣어둘까요? 혼자 가는 거긴한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안나가웃



**쿠사카베 린:** 네넵



**호인:** 아라쉬는?



**쿠사카베 린:** 일단 출바알~



**아라쉬:** 갑니다



**Kaming (GM):** 린 혼잔가요?

둘이군요



**아라쉬:** 제가 이번에는

린과

-



**Kaming (GM):** 데이트?



**쿠사카베 린:** 옛써!

앗앗

나이차이...



**호인:** 호인이 세실리아와 갑니다



**Kaming (GM):** 아라쉬 몇백ㅅ..

읍읍

그러면 아라쉬 등장판정



**쿠사카베 린:** (Fate느낌으로는 살아있었으면 천년단위뻔...?)



**호인:** (아라쉬>호인>=세실리아>린

(현재 나이차는 이렇죠



**아라쉬:**

(  +  )

= 9

 **Kaming (GM):** (사쿠야>모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초대 안할거야)

 아라쉬: 4를 6으로

 **Kaming (GM):** 넵  
그러면

 호인: (포멘더 있습니다)

 **Kaming (GM):** =====  
린과 아라쉬는  
단서를 쫓아 하사시로 아일랜드의 도착했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니...아예 다 흩어지는게 켈 나아보이는데 왜 그리 따라오시려 하시는...)

 **Kaming (GM):** 기동사건때문인지

 호인: (그럼 따로 가져 뭐

 쿠사카베 린: (혹시라도 전투벌어질까봐...)

 **Kaming (GM):** 미개발지구쪽을 바라보는 곳에만 사람이 집중되었네요.  
다들 사진을 찍고 난리났습니다.

 호인: (저는 그냥 PC성격대로 하고있어서

 **Kaming (GM):** 이거 처리하기 곤란하겠네요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은 전무  
모두 기동에 관심이 가있습니다.  
아 관람차만이

 쿠사카베 린: 이때를

 **Kaming (GM):** 사람이 돌아가고있네요.

 쿠사카베 린: 기다렸다  
4를 써서 명나 사룬안이다요

 **Kaming (GM):** 그렇게 하려면  
모두 자신을 보게 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쿠사카베 린: 쿛  
그건 부끄러워  
그럼 패스하고 (아키짱이 잘 해줄거야)  
"제 감이 말하고 있어요..."  
"기동은 분명 관람차라고!"  
"그런 연유로, 당장 관람차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치노스케: [예-이]

 **Kaming (GM):** 하지만 관람차주변은 엄청나게

북적거리는군요

다들 관람차를 타고 기둥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몰렸나봅니다.

어떻하죠?

저 인파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려나요



**아라쉬:** "어쩔 수 없지."

"린."

"업혀."

-



**Kaming (GM):** (어멋..)



**쿠사카베 린:** "에? 에? 아, 네"

@답씩 업힙니다



**Kaming (GM):** (적극적인 남자 아라쉬)



**아라쉬:** 그럼. 그대로

인파 쪽으로



**이치노스케:** [허나 플래그 따위 없었다]



**아라쉬:** 뛰어들어갑니다.



**Kaming (GM):** 네 그럼 체력판정

난이도 9



**아라쉬:** rolling 2d6+8

( 5 + 4 )+8

= 17



**Kaming (GM):** 네 성공

명색의 카미가카리

일반인들따위는



**아라쉬:** 1과 5를 교환해서



**Kaming (GM):** 아라쉬를 막지못합니다.



**아라쉬:** <

성공



**Kaming (GM):** 그러면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관람차에 도착

새치기한다고 여기저기 난리피우지만

인파에 묻혀

안들립니다.



**이치노스케:** [아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관계자 지나갑니다]

-  쿠사카베 린: "단숨에 여기까지왔네..."
-  아라쉬: "후우."
-  Kaming (GM): 아라쉬는 강했다
-  아라쉬: "린. 생각보다 가볍네."  
-
-  Kaming (GM): (어멋)
-  아라쉬: (실레다)
-  Kaming (GM): (생각보다라니)
-  쿠사카베 린: "그렇죠? 최근 다이어트에 좋다는 상품을 홈쇼핑으로 1년치 구매해서 (영수증은 쿠사카베 가문 앞으로)"
-  아라쉬: (아처와 린이라니)  
(이 무슨)
-  호인: (그러닝)
-  Kaming (GM): (운명이다)
-  쿠사카베 린: (데스티니..)
-  Kaming (GM): 무튼  
관람차에는  
무사도착
-  쿠사카베 린: 그런고로 관람차 조사DAAAA  
백안!
-  Kaming (GM): .....잔넨 짱이엿습니다.  
평범한  
철덩어리엿습니다.
-  쿠사카베 린: 나니이이잇!
-  Kaming (GM): 이곳이 아닌듯합니다.
-  아라쉬: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  쿠사카베 린: "짱이라니!"
-  Kaming (GM): 아무레도 헛다리 짚었군요.
-  아라쉬: "잠깐 타자."  
-
-  Kaming (GM): 이곳에 기둥은 없는것같습니다.  
단둘이..관람차  
는 이치노스케가 있군
-  쿠사카베 린: "흑... 좋아요! 높은 곳에서 다음 장소를 함께 찾는 거예요!" @의지빵빵



이치노스케: [아, 빠져있는 게 좋을 거 같군요] @슬금



아라쉬: "천리안을 쓰면. 기둥이 보일지도 몰라."



쿠사카베 린: (천리안!)



Kaming (GM): 하지만 그순간

둘은 새치기했다며  
관계자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아라쉬: 관계자에게 사료안 쓰면 되는게?<



Kaming (GM): 되쫓



쿠사카베 린: (귀여운 SD카툰 풍)

사료안입니다  
나는 이사장의 딸...  
즉 프린세스  
당신은 저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계세요



아라쉬: 코드기어스인가



쿠사카베 린: 4 소모합니다아



Kaming (GM): 관계자는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쿠사카베 린: "자, 이틈에 어서 타요!" @아라시를 끌고 고고



호인: (뭐하는거야

(ππ



Kaming (GM): (πππ)



쿠사카베 린: 팔굽혀펴기 100번하면 그 다음은 소수를 세고 있어주세요

소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숫자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줄 거예요



Kaming (GM): 자 그러면

관람차에 올라탄 둘  
뭐하나요?  
이상한짓 하면 안됩니다.



아라쉬: 높은 위치에 도달하면

창밖을 내다보며  
기둥을 찾습니다.



Kaming (GM): 흠

그렇군요



쿠사카베 린: 높은 환경에 대한 판정 보너스으

주세요



Kaming (GM): 민첩 난이도 22 주지요



호인: (호텔로 가볼까..)



쿠사카베 린: (우와앗)



아라쉬: 민첩 난이도 22인가



Kaming (GM): 찾는다면 위치 알려드립니다.



아라쉬: 민첩이 8이니까  
14가 나와야 하네요  
영력연소 쓰죠



Kaming (GM): 네



쿠사카베 린: 즉 린에 대한 감정을 불태워...  
파워업



아라쉬: 그렇네요



쿠사카베 린: (@타이터스)



Kaming (GM): (린이 보고있어.열심히 해야짓..)



아라쉬: 쿠사카베 린이  
대견하다는 감정을  
불태워서  
에-  
다이스를 3개 추가 할까요.  
3개 추가하겠습니다.



Kaming (GM): 어머니나  
그렇게나



쿠사카베 린: (어머니)



Kaming (GM): 령문을 아끼지않는다.



아라쉬: 본인의 다이스를 믿지 않는



호인: (옴메야



쿠사카베 린: πππ



Kaming (GM): 좋습니다.



아라쉬: TRPG 플레이어의 귀감



쿠사카베 린: 다이스갓이여...



아라쉬: 아니다 6이 두개나 있으니까  
2개만 추가해도 되겠다  
2개 추가인걸로



Kaming (GM): 그러면 4d6ㄱㄱ



아라쉬:

( 3 + 1 + 1 + 5 )+8

= 18



**Kaming (GM):** 싯빠이



아라쉬: 1하나를 6과 교환



**Kaming (GM):** 넵



아라쉬: 아니

5로

교환해도 성공인가?

5로 교환할게염



**Kaming (GM):** 딱 성공

네



쿠사카베 린: 오오오



아라쉬: 천리안...



**Kaming (GM):** 그러면 아라쉬는



아라쉬: B



쿠사카베 린: 이게 아쳐라면 기본으로 갖춘다는 천리안 스킬...의 힘!



**Kaming (GM):** 어렵게 어렵게

기둥의위치를 찾아냅니다.



아라쉬: "...찾았다."



**Kaming (GM):** 메카밥님만 보일꺼예요 정보7



쿠사카베 린: 과, 과연 어디냐



아라쉬: 아까랑 변한게 없이..



쿠사카베 린: 어디냐앗



아라쉬: 보여져욧



**Kaming (GM):** 그런가요



쿠사카베 린: 린의 완벽한 추리가 빛나가다니



**Kaming (GM):** 일단 린을 제외하고



쿠사카베 린: 인-텔-린...



**Kaming (GM):** 정보공개 불가입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새로 만들어?)



**Kaming (GM):** 동시간대라

새로만들져

메타발언도 불가



아라쉬: "찾았...는데..."  
"저기였나..."



**Kaming (GM):** 린에겐 공유가능  
정보로만!



아라쉬: 조금 분한듯. 린에게 위치를 말합니다.

-



**Kaming (GM):** 어렵듯이 느껴지는 기둥  
아라쉬도 확실히 보이는데  
오래걸렸지요



쿠사카베 린: "에에에에...."



**Kaming (GM):** 못찾을만 했습니다.  
린의 눈에는 안보이겠쥬  
천리안이없으니



쿠사카베 린: "나의 마안으로는 무리였나...."  
"뭘! 타입이 다른 거니까요!"



**Kaming (GM):** 무튼 그렇게 관람차는 다시 내려갑니다.  
어서 이 사실을 알리지않으면!!



쿠사카베 린: (나는 매료의 마안...)  
스마트폰 톡톡  
<모바일>이다아



**Kaming (GM):** 하지만 동시간대라  
정보전달은 다음 씬 처리후가 됩니다.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아니라면 시간 지나가고 전달해도되요



호인: 위치를 알았으니 흠어질 필요도 없는가



**Kaming (GM):** 어떻하실?  
시간이 지난다=기둥이 커진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나는 그래도 씬을 가질거야  
@호인은 오려면 오셔도 되고...



쿠사카베 린: 씬이 필요하신 거 같으니



**Kaming (GM):** 넵 그러면



쿠사카베 린: 그럼 이따가 합류해요~



호인: 흠 어쩔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츠츠노미야 해변공원.



**Kaming (GM):** 관람차에서 이외의 소득을 올린 둘 그 시간 다른 장소는...

=====

씬플레이어 세실리아고

호인만 초대가능 나머지는 등장못해요



**호인:** 으쓱

아까 초대는 없다고 했으니

생각좀 해보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이츠츠노미야 해변 공원...메타로는 초대하지만 세실리아는 그런거 없다



**Kaming (GM):** 초대없이 등장은 행운 8

초대하셨으니 난이도 2



**호인:** 가지요 이왕 가는거

rolling 2d6

( 1 + 6 )

= 7

6이랑 1을 교환



**Kaming (GM):** =====

이츠츠노미야 공원

바람의 기둥을 멈춘곳이지요

여전히 통제되어 사람은 없습니다.

멈춘 기둥에는

기둥은 두개를 잇는 거대한 길 이라는 글만 적혀있고



**Kaming (GM):** 미동도하지않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두 개를 잇는 거면..."

@기둥을 올려다보면서 중얼거리네요



**호인:** @어느새 세실리아의 뒤에 착지



**Kaming (GM):** (스토커양!)



**호인:** "뭔가 생각한게 있어서 이곳에 왔느냐"

(그러게요 스토커호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딱히.."

"근처가 소란스럽다고 했으니 와 본거 뿐인데."

"별건 없는건가..." @한숨

@주변이 공업지대니까요.



**호인:** "허나 즐거움이 없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저쪽 반대편인가?" @동물원 쪽을 가르키죠.

"공원은 나름대로 즐겁다고."



**Kaming (GM):** (수인들이 동물원에 방문 avi.)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뭐, 그러면 동물원 쪽으로 걸음을 옮겨가겠네요

@차는 없으니...



**호인:** @인력거 대기중

은 드립이고  
세실리아를 따라가겠네요



**Kaming (GM):** 동물원까지 걸어가는 도중...

통제가 되지않은곳까지 나온 두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기자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기자"저곳에서 나오다니 혹시 무슨일이 일어났나요!"



**호인:** "이런..."



**Kaming (GM):** 기자B"꼬마들? 혹시 저 안에서 무슨일이.."

@이하 동문  
수많은 기자들이 개때처럼 다가와  
사냥감을 보듯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호인:** @문답무용으로 세실리아를 들고 점프해서 달아나보지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전부 때려눕혀버릴 생각이었지만...



**호인:** 잠깐

그러지마  
난또 세실리아가



**Kaming (GM):** 그러기전에 호인이 날랐군요



**호인:** 린의 마안처럼

세뇌가 있을줄 알았어



**Kaming (GM):** 덕분에

기자들이 더욱 난리 피운건 또 다른일이지만



**호인:** 세실리아를 업거나 뭐 들거나해서 동물원까지 달려갑니다



**Kaming (GM):** 덕분에 조금 한산한곳을 지나

동물원에 도착  
하지만 동물원도 날립니다.  
기동에 영향인지 동물들이 매우 민감해져  
탈출을 감행해  
동물원을 돌아다니고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잡으려고 하지만 역부족



**호인:** 이런 매료의 마력이 있었어야...



**Kaming (GM):** 덕분에 일반인들도

동물들에게 피해를 보고있네요.  
어떻 하나요 두분!



**호인:** 호인은 당연히 동물들을 진정시키기위해 뛰어듭니다

세실리아 피꺼숏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호인은 버려두고 특이한 영력이 느껴지나 탐색해봐요.

 호인: 읊

 Kaming (GM): 호인은 체력판정 난이도 8

 호인: rolling 2d6+9

( 1 + 1 )+9

= 11

문제없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멤브루다로)

 호인: 하나를

 Kaming (GM): 제일높은숫자 1로

 호인: 1로만들면 되는거신가

 Kaming (GM): 6->1

로만들면 되겠네요

 쿠사카베 린: (멤브루우...)

 Kaming (GM): 하지만

광분한 동물들이

호랑이 무서운줄 모르고

호인을 마구 치고 갑니다.

장갑무시 10데미지

세실리아는 행운으로 난이도 9

 쿠사카베 린: (웜마야)

 호인: 적용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3

( 3 + 4 )+3

= 10

 호인: 딱치는대로 그냥 쑈서넣는중

 Kaming (GM): 성공

그러면 세실리아는...

 호인: 원숭이 우리에 사자를 넣는다던ㄷ가..

 Kaming (GM): 저 안쪽에 영력반응이 나타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있어."

 Kaming (GM): 호인은 동물에 치어버렸군요



호인: 펌블뜨면 자동실패구나  
몰랐



Kaming (GM): 넹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동물에 깔리고 있는 호인을 잠깐 보고는...안쪽으로 가죠.



호인: 영력조작할걸 그랬나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못함)



Kaming (GM): 네



호인: 넴



Kaming (GM): 펌블이랑 스페셜은  
영력조작 불가



호인: 다이스가 여기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만 두고 가자. 안에 있어. 뭔가가."



Kaming (GM): 액땀한걸록ㅋ  
세실리아가...  
그렇게..다가가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친 호인을 치료는 해주겠군 ㅇ6ㄴ



Kaming (GM): 힐하시냥?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고위치유부터  
@5 1개 씩입니다



호인: 10정도는 괜찮을거같은딩



Kaming (GM): 촌촌하지만 치유해줄건 다해주는 어른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9

( 2 + 5 )+9

= 16

rolling 3d6+15

( 4 + 6 + 1 )+15

= 26



Kaming (GM): 내 만땅



호인: @뽕  
(저놈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Kaming (GM): 연못이 나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 안이네..."



**Kaming (GM):**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영력반응은!



**호인:** @세실리아를 뒤따라 오다가..



**캣파:** "캣파아.."

@등등



**호인:** "오랜만에 보는구나"

@반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캣파:** 캣파데시타!



**호인:** (솔직히 이럴줄 알았다



**캣파:** 이 난리중에 한가롭게 낮잠중인 캣파가 있네요



**호인:** @세실리아에게 감사를 전한뒤



**캣파:** 왜 여기서 이러고있는지 몰라도



**호인:** 캣파에게 다가가겠군요

"또 집이 무너져서 이곳에 있느냐"



**캣파:** "캣파아..?"

@눈을 비비적

"친절한 짐승이다 캣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호인:** (세실리아ㅋㅋㅋㅋㅋ



**캣파:** "여기서 가끔 낮잠을 잔다 캣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잠시 노려보다가...

(캣파 크기가?)



**캣파:** "인간들이 먹을것도 많이준다 캣파"

@작은 팽귄사이즈



**호인:** "그렇구나"

@흐뭇하게 바라보겠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캣파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캣파:** "게다가 여기는 그늘져서 햇빛걱정도 없다 캣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집어듭니다.



**캣파:** "캣파!?"@바둥바둥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리고 저 멀리 연못 중앙으로 집어던져요.



**호인:** "너무 거칠게 다루지는 말거라"



**캣파:** "캣파아아아!"

@풍덩



**호인:** @그런 캣파를 잡아주네요

띠용



**캣파:** 세실리아의 투구는 빨랐다  
잠시후 다시 떠올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리고 획 돌아서서 가버려요.



**캣파:** "캣파파 재밌다 캣파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시간 낭비했잖아.



**캣파:** @그걸 또 재밌다고 좋아하는 캣파였다



**호인:** "주변에서 특이한것을 본적이 있느냐"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캣파:** "캣파? 캣파는 낮잠자느냐 모른다 캣파"  
@아무것도 모른다 표정



**호인:** "그렇구나 집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계속 있을것이나?"



**캣파:** "캣파 해가지면 파우가 놀러오기로했다 캣파파"  
"그때는 돌아갈거다 캣파"



**호인:** "조금은 위험할수도 있으니 잘 숨어있거라"



**캣파:** "잘가라 캣파"  
@손..아니 갈퀴를 흔들어줍니다.



**호인:** 웃어준뒤 세실리아를 따라갑니다



**Kaming (GM):** 결국 짱이였군요  
동물원도



**호인:** (호텔이나 혹은 미개발지구쪽인가  
(두개 다리가 이어진거가 너무 신경쓰인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 그 쯤 해서 아라쉬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린이나



**Kaming (GM):** 네  
그렇겠네요.  
아라쉬나 린 정보전달?



**호인:** (잠시 화장실좀 다녀오겠습니다)



**Kaming (GM):** (냉)



**아라쉬:** 네  
그럼  
린이 연락했으니  
린쪽에서 정보가 공유되겠네요



**Kaming (GM):** 네 정보전달!!!  
세실리아는 린에게 날라온 문자내용을 봅니당

**아라쉬:**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저쪽이었네."



Kaming (GM): 기둥은 하사시로 대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쫓, 혀를 차고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Kaming (GM): =====  
세실리아는 귀여운 캣파씨를 찾았다!  
자 그러면  
전원 등장이고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1d6

( 1 )

= 1



Kaming (GM): 장소는 하사시로 대교입니다.



쿠사카베 린: 넵



Kaming (GM): =====  
하사시로 대교의 도착한 여러분  
겉보기에는 전혀 아무런것도 보이지않지만..  
아라쉬가 알아낸 기둥은 이곳..  
영력결계안에 있습니다!



아라쉬: "차를 타고 지나가도 안보인 이유야."



Kaming (GM): 여러분이 영력결계를 펼치면 눈에도 보일겁니다.



쿠사카베 린: 그렇다고 결계를 뿡 펼치면  
뭔가 함정 걸리는 건 아니겠조



Kaming (GM): 두둥!



쿠사카베 린: ...



Kaming (GM): 빌딩만한 기둥이



쿠사카베 린: 음마야



Kaming (GM): 다리를 뚫고 올라와 손아있조  
시간을 너무 지체한듯합니다.  
여태껏 기둥보다 더 두꺼운 거대한 기둥  
그것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걸로 영맥의 힘을 빼낸단 말이지..."



호인: "이것만 없어진다면 더이상 영맥의 힘을 빼지 못한다는것인가..."



쿠사카베 린: "이거, 부술 수 있는... 아니, 부수는 거야." @빠릿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후우. 좋아. 지체없이 다가가보죠.

-  **[용살자]크리프 보른:** "거기까지"  
@슈우웅 쿵  
어디선가 나라와 기둥앞에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크리프 보른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나올 게 나왔구나..."
-  **[용살자]크리프 보른:** "잘도 이것을 찾아내었구나"
-  쿠사카베 린: "나타났구나...!"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씨익 미소를 피워올리며 중얼거려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거야."
-  **[용살자]크리프 보른:**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늦은듯하군. 세실리아"  
@거대한 기둥을 보며  
"아무리 자네라도 이 기둥은 힘들겠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글쎄, 해볼까?"
-  **[용살자]크리프 보른:** "내가 막고있는 한 말이지"  
@차악  
창을 꺼내드립니다.
-  호인: 세실리아 옆에 섭니다
-  쿠사카베 린: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인형을 꺼내 전투태세
-  호인: (가장 앞에 나간거였나
-  이치노스케: [지고 나서 울지 말라고 짜-삭!]
-  호인: "하나만 묻지 어차피 대답해줄 생각도 없겠지만"  
"어째서 영맥에서 힘을 전부 뽑아가는것이냐"  
"대영맥이 이곳에서 얼마나..."
-  ?????: "나도있지. 오랫동안이야 세실리아"
-  **Kaming (GM):** 푸른 나비들이  
갑자기 날라와 합쳐지며  
사람의 형상을 씹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쫓.
-  **Kaming (GM):** 그리고 크리프 보른 옆에 서죠
-  호인: @새로운 인물의 등장애 고개를 돌립니다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다른사람들은 처음인가. 내 소개를 하지 나는 로즈블루 블러드레인"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나 살아있으면 둘 살아있는 것도 이상한게 아니지..."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성당 제 2기사단 소속."
-  호인: "성당...기사..."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그쪽과는..[전]동료야"  
@세실리아를 바라보며

"못본사이..귀여워졌네"



아라쉬: "....."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단장님의 말이 사실이었어"



[용살자]크리프 보른: "...세실리아 우리의 강함은 그대가 더 잘알터...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래서, 나머지 둘은?"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그만 보른 악마를 돕는 이단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해치워야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설마 너희 둘로 날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히려 웃긴다는 듯 말합니다. 약해졌으니 명백히 허세지만.



쿠사카베 린: (즉 할머니)



Kaming (GM): 오바상



[용살자]크리프 보른: ".....나는 그대들이 물러난다면 아무것도 하지않겠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보른!"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뽀, 그럼 일행 쪽을 둘러보죠.



[용살자]크리프 보른: " 이 기둥은 악마를 섬멸하기위해 필요한것"

"그대도 한때나마 악마를 퇴치하는자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회개하게"



호인: "그렇다면 말에 설득력을 실어라!"



Kaming (GM): 뭔가 이들과는 대화가 어긋나는 느낌입니다.



호인: "대영맥이 흐트러지고 크고작은 영맥이 불안정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초상현상이 일어나고있다!"

"악마를 멸하기위해라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테냐!"

"전사여 우리는 뜻을 밝혔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역시....이상하잖아. 이거."



[용살자]크리프 보른: "지금 영맥이라 불리는 것도 다 악마의 탓. 그러니 악마를 정화해야한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혼자 중얼거리죠.



[용살자]크리프 보른: "그러니 방해하지 말게"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더이상의 설명은 입만 아플뿐이야."@파앙!

푸른 나비들이 날아가

터집니다.



호인: "크윽!"



아라쉬: "들을 귀 따위는 없다. 네."

"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야."



호인: "우리의 뜻은 진작에 밝혔다"

"창을 들어라 갑옷의 전사!!"

-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 준비해."
-  [용살자]크리프 보른: "어쩔 수 없는가.."  
@철컹철컹
-  아라쉬: (랜서 상대로 아치가 덤비는건...)
-  [용살자]크리프 보른: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보른
-  호인: (칼쓰는 애였던가)
-  쿠사카베 린: (게임 아니니까! 게임 아니니까 상성도 없으니까!)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세실리아..너만큼은 믿었었는데.."  
@원망스러운 눈빛
-  쿠사카베 린: (로즈블루는 캐스터인가 읊...)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날 믿어? 네가? 호오. 그건 의원데."  
@훗, 웃어넘겨요.  
"언제나 뒤에서 혼자 멀쩡히 서서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미워하지 않았던가?"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동료로서 말이야! 이 바보..똥어..이제 모두 끝이야. 동료를 저버리다니..여기서 내가..끝내주겠어"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  아라쉬: "신뢰 받고 있었나 본데? 세실리아."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장에서 만났는데 말이 많네, 할.머.니."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도발왕 세실씨응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는 무시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
-  Kaming (GM): 자 그러면  
전투의 장으로 이도웅
-  아라쉬: 1 6 5 6
-  호인: 요오오오오시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화장실이다)
-  호인: 1 3 4 5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6651
-  Kaming (GM): 호인 1345 아라쉬 1656 린 4556
-  쿠사카베 린: (아 아까 4 썼는데 안 지워졌네요)
-  Kaming (GM): 잘보니  
다리 옆 물속에도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  괴물 메기: "꾸에엑"  
@퐁덩퐁덩

 쿠사카베 린: (아까 씬 끝났을 때 회복해줬어야했을 테니까...지금 채워두겠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rolling 1d6

( 5 )

= 5

 Kaming (GM): 앗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투씬입니다만.  
시간이 늦었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끊고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악동양반: 문제 없습니다  
저는 더 진행해도 되지만 다른분들이...

 리포: 보스급 두 마리라  
분명 늘어질 거 같으니...

 아라쉬: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Kaming (GM): 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끊죠)

 Kaming (GM): 그럼 여기까지

 악동양반: 샹샹 끊습니다!

 Kaming (GM): =====  
수고하셨습니다.

 악동양반: 네 고생하셨습니다

 리포: 수고하셨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고생하셨습니다

 Kaming (GM): 아주 아깝게

 리포: 으음, 린의 마음가짐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거 같다  
공부를 더 해야...

 Kaming (GM): 다리라는걸 놓쳤네요  
처음에  
아라쉬가  
바로 다리라고해서  
오옷  
했는데

 리포: 기둥이 안 보이는 거라곤